

다음은 Copykiller에서 교육한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이인제 교수의 연구윤리 강의를 요약하고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을 추가하여 작성했습니다.

연구 윤리와 중복 게재

교육부는 2015년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11.3 교육부 훈령 제153호)에 **부당한 중복 게재**를 추가하였습니다.

부당한 중복 게재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복 게재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부당한 중복 게재를 의미합니다.

중복 게재의 정의

중복 게재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이(내용이 Substantially Overlap)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의 허락 없이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출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실질적 유사한 논문이란 내용적 특징적 요소(가설, 자료, 토론, 논점 결론)가 닮은 원고를 말합니다. 중복 게재는 이중 게재, 자기 표절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데 각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중 게재: 완전히 동일 또는 거의 유사한 논문을 2회 이상 출판하는 것
- 중복 게재: 논문의 중요 요소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것
- 자기 표절: 이중 게재와 중복 게재를 통합하는 개념

이중 게재는 중복 게재에 포함이 되며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 자기표절입니다.

중복 게재 유형

- 복사: 언어를 달리하거나 같이 할 수 있으나, 기존 논문의 내용을 출처표시 하지 않고 출판(일부 수정 포함)
- 논문 쪼개기(Salami Publication): 동일 주제의 연구를 나누어 출판 (동일 내용의 연구를 데이터를 다르게 하거나, 일부 방법만 다르게 하는 경우)
- 논문 덧붙이기(Impalas): 하나의 논문에 기간, 변수, 사례 등을 추가해서 만들어 내는 경우로 새로운 학술 가치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중복 게재 판단기준

중복 게재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 제시되는 내용 중 1~2가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중복 게재로 판단합니다.

- 가설이 유사한가?
- 사용된 샘플이 유사한가?
- 방법론이 유사한가?
- 결과가 유사한가?
- 저자 중 1명 이상이 각각에 포함되어 있는가?
- **새롭고 의미 있는 또는 학술적 정보가 없는 경우?**

특히 마지막 "새롭고 의미 있는 정보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즉, 새로운 논문에 앞 논문의 내용이 없더라도 새로운 논문이 학술적인 의미가 있고 이전 논문의 출처표시가 있으면 중복 게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COPE(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는 학술지 출판을 위해 사용되는 출판윤리지침으로 다음의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 서론과 이론적 배경, 방법론 등은 일정 부분 text의 재활용을 인정하나 재활용의 양과 **인용된 원본을 밝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연구 결과의 경우 항상 정직하게 중복 사실을 밝혀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출처표시**를 해야 합니다.
- **결론이나 수치가 동일한 경우** 중복 게재로 판단합니다.
- **그림이나 표의 경우, 재사용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중복에 해당합니다.

원고의 이차 출판

연구 윤리에 벗어나는 행위는 중복 게재 자체가 아니라 중복 게재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한 **이차 출판은 정당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권장될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편을 모두 실적으로 인정 받으면 부당한 중복 게재에 포함됩니다.

정당한 이차 출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두 잡지 편집인에게 승인
- 적절한 인용과 주석
- 제목이나 첫 페이지에 이차 출판임을 표현하는 문구 삽입
- 일주일 이상의 출판일 간격
- 다른 독자 군을 대상으로 할 때
- 1차 논문의 자료와 해석이 다른 경우

이차 출판에 대한 정책은 출판사, 학술지 별로 상이 하기 때문에 위의 여러 조건 중 양측의 잡지 편집인에게 확인을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학술대회 논문을 학술지로 보완 출판을 가능한가?
 학술대회 논문을 보완해서 학술지에 내는 경우는 학술지마다 그 정책이 다릅니다. IEEE의 경우도 저널마다 모두 다른 Policy를 가집니다. 일례로, communication community에서는 허락하고 있으나 control community에서 이중 게재로 봅니다.
2. 학위논문을 학술지로 출판할 수 있는가?
 이공계 석/박사 학위 논문은 공식 출판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들어 중복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학위논문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술지의 내용을 출판하는 경우는 용인이 되나 이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구과제로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학술지로 출판할 수 있는가?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학술지로 내면 출판이 가능한가? 보고서의 저자와 출판기관(주관수행기관)이 허락하는 경우 가능한 하나 출처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